

회화에 대한 질문, 회화를 위한 전시



문화 브리핑

예술공간집 ‘회화의 눈’

김유섭·이현·황정석 참여

스승과 제자 붓질의 궤적

스승과 제자가 회화에 대한 각자의 단상을 공유하며 더 많은 답문을 모색하는 전시가 열린다.

다른 매체나 기법에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회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이번 전시 제목은 ‘회화의 눈(眼)’이다. 김유섭 조선대학교 교수와 이현, 황정석 작가 총 3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7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관람할 수 있다.

‘검은 그림’ 시리즈로 대표되는 김유섭 작가



김유섭 ‘study for depth, broadness’

는 회화 본질에 대한 성찰과 의미, 회화 표현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 회화의 기능적인 역할을 배제하고 순수한 표현방식에 중점을 두면서 이 모든 것들이 캔버스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주목한다. 그의 작품은 재현에서 시작된 회화의 본질에서 벗어나 그 근원과 지향점을 관객들에게 질문하며 캔버스 속에 숨겨진 깊이와 의미를 찾기 위해 표류한다.

이 작가는 자신이 그리는 대상을 끈질기게 탐구하며 작품을 그려나가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의 일부를 깊이 들여다보는 동시에 그 안에 자신만의 사유와 고민을 축적해나간 작품들을 선보인다.

주로 역사적 장소들을 탐독하며 그로부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과 회화의 길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던진 황정석 작가는 여러 장소의 주변을 걸으며 경험하고, 포착된 장면을 매개로 감정이 촉발되는 지점에 다가서기를 소망한다. 그는 얇은 볼펜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나 사물 등을 그려내는데, 재현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시선을 통해 그 장면을 다시 재구성하며 작품 안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담아낸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현 작가는 “회화는 미술의 역사이면서 인류가 태어나며 함께한 눈과 손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회화의 눈이란 화가의 손을 통한 붓질의 궤적을 의미하며, 이 궤적들은 모여 화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여정의 표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회화에 대한, 회화를 위한 전시를 해보고 싶었



이현 ‘border 1’

고, 회화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답했다.

“개인이 겪은 사회에 대한 이슈나 개인적 서사, 혹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회화가 아

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가진 본래의 의미와 ‘회화적인 회화란 무엇인가’ 등 지극히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입장에서 시작한 전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지현 기자

은새암 원데이 클래스 운영

7일부터 광주여성재단 북카페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북카페 ‘은새암’에서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총 4주간 매주 목요일 ‘은새암 원데이 클래스’가 운영된다.

이번 달은 지역 내에서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0명 이내로 모집하며, 조은서 아로마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는다.

총 4회차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모두 아로마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며, 만드는 과정에서 향기를 맡으며 아로마 힐링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운 여름철 실내 프로그램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오지현 기자

상반기 미술품 경매 규모 1,446억

낙찰총액 1위 이우환 200억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매출 규모가 1,400억 원대로 지난해에 이어 미술시장의 열기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한국미술사가감협회에서 발표한 ‘미술품 경매시장 상반기 결산’에 따르면 총 거래액은 1,44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438억 원)와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낙찰률은 65.3%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낙찰률은 지난해 65.4%, 2020년 64.5%, 2019년 65.8% 등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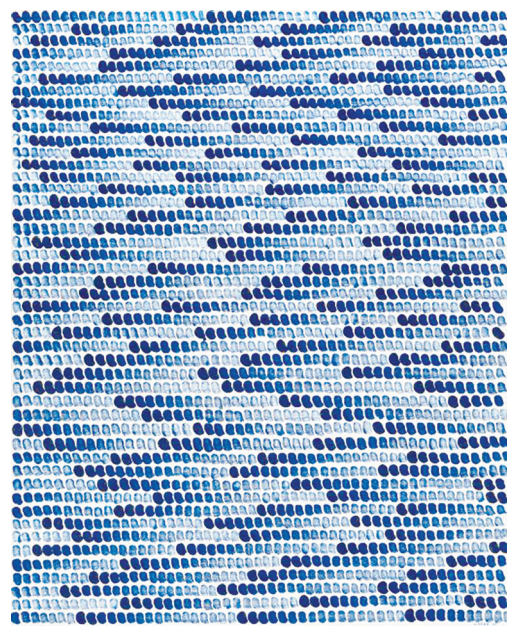
낙찰총액 1위는 200억 원을 기록한 이우환

작가로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이어 구사마 야요이(138억 원), 박서보(85억5,000만 원), 김환기(49억6,000만 원), 아야코 료카구(46억4,000만 원) 등의 순이다.

경매사별로 보면 서울옥션이 약 758억 원(낙찰률 76.6%)으로 1위를 차지했고 케이옥션이 526억 원(낙찰률 67.6%)으로 2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경매사 10곳(서울옥션, 케이옥션, 마이아트옥션, 아트데이옥션, 아이옥션, 라이즈아트, 에이옥션, 칸옥션, 토탈아트옥션, 꼬모옥션)에서 올해 상반기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 결과다. 양대 경매사의 비중은 88%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우환 ‘점으로부터’

/서울옥션 제공

/오지현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